광산구보

VOL. 356

기획특집

광주에서 가장 먼저 봄이 오는 농업기술센터
봄의 싱그러움을 담은 동곡동 딸기 스마트팜
삶의 이야기를 그리는 어반스케쳐스
피구로 공존의 의미 배우는 하남중앙초 학생들

2024 3

이제 곧 피어날 봄꽃처럼 경제도 활짝!

서지은 광산구 첨단2동

친구들과 저녁을 먹기로 하고 하남동 메가박스 인근을 돌던 날. 식당마다 사람들로 북적였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만 해도 한산했던 곳들이 예약을 해야 한다는 둥 웨이팅이 길다는 둥 어디를 가든 자리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어렵게 빈자리가 있는 식당 하나를 찾아서 친구들과 메뉴판을 들여다보는데, 괜히 쿡 하고 웃음이 터졌다. 누군가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을, 다시 찾은 일상이 무척 소중하게만 느껴졌다. 골목상권을 지키던 상인분들도 이제 한시름 덜겠구나 싶었다.

친구들과도 바짝 붙어 앉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도 다닥다닥 붙어 앉은 모습이 퍽 보기 좋았다. 누군가 곁을 지나가더라도 인상을 쓰거나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도 이젠 보이지 않는다. 밥을 먹으면서 환하게 웃는 사람들. 사람은 역시 부대끼며 살아갈 때 행복을 느끼는구나 싶다. 지금도 하늘 높이 치솟는 물가로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코로나19를 잘 넘겨온 만큼 지금 이 시기도 모두들 잘 넘기지 않을까? 지난날 우리가 사람의 온기를 다시 한번 돌아봤듯 이 시기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인지도 모른다.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오는데 사장님 얼굴이 무척 밝아 보였다. 앞으로도 맛있는 음식을 꾸준히 먹을 수 있도록 골목상권을 지켜주는 모든 상인분의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으면 좋겠다. 이제 곧 수 많은 봄꽃들이 차례로 기지개를 켤 것 같은데, 상인들의 웃음이 곧 우리의 골목을 두루 밝혀줄 아름다운 꽃이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골목상권을 기대해 본다.

당신의 광산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광산구는 어떤 곳인가요? 엄마 손을 잡고 장에 가던 날, 가게 문을 처음 열던 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던 날…. 특별하지 않아도 좋아요. 추억 속에 하나의 조각으로 남아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양한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기획 취지에 따라 제작 과정에서 원고가 편집될 수 있습니다.

• **성함, 연락처, 주소(읍·면·동까지만)** 기재 필수 • **3월 20일까지** / **원고 분량 800자 이상** / 이메일 theann1@korea.kr 접수

글 / 싣는 / 순서

상생광산	4	**기획특집**	• 광주에서 가장 먼저 봄이 오는 농업기술센터
			• 봄의 싱그러움을 담은 동곡동 딸기 스마트팜
			• 삶의 이야기를 그리는 어반스케쳐스
			• 피구로 공존의 의미 배우는 하남중앙초 학생들
	15	**독자참여**	• 이 달의 추천도서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는다'
			/ 숨은그림찾기 당첨자 발표
	16	**기획연재**	광산의 철길과 기차역 ④광주송정역(상)
혁신광산	18	**문화야놀자**	보호수에 얽힌 이야기 ③운남동 갈참나무
	22	**광산구의회**	따뜻한 지역사회 실현… '설맞이 온정 나눔' 外
	24	**나눔의행복**	갈비에 담긴 황솔촌 부녀의 봉사철학 外
	27	**알짜소식통**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 안내 外
	30	**독자한마당**	맛있는 추억이 담긴 행복한 순간
	32	**지면드려요**	2024 광산 공유아이디어 경진대회

표지 이야기

"모든 삿된 것은 가라!"
지난달 24일, 정월대보름을 기념하며 마을의 안녕을 빌고 질은 세대들에게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민속축제 달집태우기를 첨단 쌍암공원에서 진행했다.
ⓒ한진수

광산구보
e-book 보러 가기

광산구보 우편으로 받아보세요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월간 소식지 <광산구보>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산구민이 아닌 분도 받아볼 수 있어요!

- **전화 및 이메일 신청** 광산구 홍보실 062)960-8357 / theann1@korea.kr
- **온라인 신청** 광산구 홈페이지 → 새소식 → '구독신청' 검색

광산구보 통권 356호 **발행월** 2024년 3월 **발행** 광주광역시 광산구 **편집** 홍보실 **시각디자인** 김중권
발행처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송정동) **전화** 062) 960-8047 **팩스** 062) 960-3709

[정정합니다] 광산구보 지난호(vol.355)에 발행된 구청장의 편지 내용 중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 31억 2천여 만 원을 3억 1천여 만 원으로 정정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기어코 찾아온 다시 봄!
봄을 맞이하는 광산인들의 꿈 이야기

봄이 쏜살같이 날아왔습니다. 복수초, 노루귀, 광대나물, 변산아씨 등 풀꽃 소식이 먼저 한 움큼씩 전해옵니다. 이어 홍매 등 매화는 만개했고, 머지않아 생강꽃, 산수유, 목련, 진달래 등도 앞다툴 태세입니다. 우리 마음도 아무도 모르게 침공당해 이미 봄의 점령지가 됐습니다.

하늘은 일 년에 세 번의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첫 번째 결심은 새해 첫날입니다. 그리고 설날이 되면 실패한 결심을 다시 또 결심하게 됩니다. 비록 두 번의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났다 해서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봄은 결심하기 좋은 날들입니다.

봄은 늘 새로운 시작이자 결심이었습니다. 시작과 결심은 꿈입니다. 찬란한 봄을 맞아 꿈꾸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호남대학교 홍매화 ⓒ한인호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광산구 평동로 639-22)

꽃이 피는 길을 따라 오는 봄

광주에서 가장 먼저 도착… 서로에게 꽃이 되기를

광주에서 봄이 가장 먼저 오는 곳은 광산구 용곡동에 있는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다. 농업기술센터에 가장 먼저 봄이 오는 이유는 꽃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광산구도 가장 먼저 봄이 온다.

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사람은 어두운 밤, 별에서 희망을 찾는다. 신(神)은 하늘의 수많은 별을 지구라는 작은 땅에 심어놓을 수 없어 대신 꽃이 피어나게 하였다. 사람은 꽃을 보며 힘을 얻는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로수 화단과 관공서 주관 행사 때 등장하는 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다. 15년이 넘게 하우스에서 꽃을 키우시는 분은 "꽃을 키우며 허리를 구부리고 일해야 해서 허리가 아프지만, 새로운 생명을 잘 보살펴서 키워낸 꽃을 시민이 보고 기뻐하며 잠시나마 위안받을 거라는 자부심이 있어 아픔을 이겨낸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분은 "꽃을 키우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라며, "꽃은 아이만큼이나 예민해서 키울 때 사랑으로 잘 보살펴 줘야 아름다운 꽃으로 피고 오래간다. 마치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해 주위에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것처럼…."이라며 다시 꽃 가꾸기에 나섰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에 공급하는 꽃 물량은 연간 100만(1년생 90만, 다년생 10만) 본이다. 계절별로는 봄 41만 본, 여름 35만 본, 가을 14만 본, 겨울 10만 본으로 봄이 제일 많다. 광산구에 공급하는 봄꽃 물량은 7만 본으로 팬지, 비올라, 크리산세멈, 알리섬 각 17,500 본이다. 얼음 아래로 흐르는 물이 봄을 미리 준비하듯 농업기술센터도 일찍 봄을 준비한다. 봄꽃은 9월에 수요 조사를 하고 12월부터 봄꽃 플러그 모를 하우스에서 키워 3월에 내보낸다.

농업기술센터는 꽃을 공급하는 일 외에도 농업인과 상생하고 소통하며 다양한 농업정보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하는 교육은 청년농업인 농담(農談) 프로젝트 교육, 농업기계 현장 기술교육 등이 있고 2023년 시행했던 빛고을농업대학 현장 견학, 온가족 농업사랑 체험 교실 운영과 같은 견학 체험 사업을 2024년에도 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인재 양성, 홍보실적 등을 종합해 매년 전국 농촌진흥기관 평가를 하는데 광주농업기술센터는 2023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광을 누렸다.

꽃이 피는 길을 따라 봄이 오는 중이다. 토닥토닥 빗방울이 봄을 깨우니 여기저기서 기지개를 켜듯 꽃이 핀다. 꽃의 아름다운 모양과 현란한 색상, 보드라운 감촉, 황홀한 향기로 위로받을 수 있는 봄에 어느 누가 외로울 수 있겠는가? 설레는 봄날 우리는 서로에게 꽃이 되어 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거리의 꽃을 볼 때는 꽃을 키우기 위해 겨울부터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면 마음에 훈훈한 봄이 와있지 않을까?

글 정규석·사진 황금동

“이렇게 맛좋은 딸기는 처음이래요”

과일시장의 판도를 바꾼 동곡동 딸기농가

광산구 본덕동의 한 스마트팜. 이른 아침부터 1,200평의 넓은 부지에서 난 딸기를 수확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광주에선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지만 농장 안에 설치된 최첨단 설비들 덕에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농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딸기는 통상적으로 겨울보다 늦봄이 제철이지만, 이와 같은 온실재배 시설이 갖춰지고 품종 개량이 이뤄지면서 추운 겨울에도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12월부터 수확에 들어가 3월까지 맛이 가장 좋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당도가 높다.

딸기 수확만 3년째라는 박일영 씨는 25년간 군 복무를 했던 군인이었다. "농사엔 정년이 없다"는 점이 그를 농부의 길로 이끌었다. 지금의 스마트팜을 짓기 전엔 2년 간 미나리, 양파, 수박 등을 재배했다. 이후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농업관련사업 교육을 받으며 딸기 재배에 대해 공부하고 전국 각지의 스마트팜을 방문했다. 투입되는 초기 자본이 많은 만큼 아내는 물론 아들, 딸 모두가 딸기 농사에 힘을 보탰다. 방학 때마다 부모를 도와 딸기를 따던 아들은 현재 농수산대학을 다니며 농부가 되겠단 꿈을 꾸고 있다.

최근엔 광산구로부터 포그와 무인방제기 등을 지원받아 인력과 시간 절약 효과도 크게 봤다. 박 씨는 히트펌프까지 설치되면 딸기 농사가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내다봤다. 인터넷 주문과 개인 판매까지 감안하면 연간 매출 규모도 상당하다. 박 씨는 맛과 품질 그리고 합리적 가격을 딸기 농사의 성공 비결로 꼽았다.

"모든 작물은 상품성이 좋아야 합니다. 맛이 좋으면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팜의 첨단 기술도 결국 맛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죠. 지난해 100여 명 정도의 예비 농업인 등이 딸기 품질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 농가에 방문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감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맛있는 딸기는 처음 먹는다'던 평가가 잊히질 않습니다. 그런 좋은 피드백 덕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로 농장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고 있다.

청년이나 후계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광주는 도농지역이다보니 시설원예와 관련한 투자에 집중해 상대적으로 인재 양성 분야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탓에 상당수 청년들은 작물에 대한 이해도나 농사에 투입되는 비용 등 실질적인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요즘 수익성만을 기대하며 무턱대고 딸기 농사에 도전하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재배 작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설 투자 대비 목표 매출액 등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야 합니다. 여기저기 많이 다니며 공부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컨설팅 등을 통해 보완해 가면 됩니다. 스마트팜이 농업의 미래는 맞지만, 좋은 농사에 대한 방향성은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돼야 하고, 거기에 맞는 인재 양성 지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글 **양가람**·사진 **오종찬**

일상이 예술이 되는 시간 '광산을 그리다'

"마을은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AI·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첨단기술로 마을을 그릴 수 있지만 인간이 가진 감성까지 표현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장소를 보더라도 개인마다 다른 감성으로 느끼는 거죠. 그림 안에는 그런 감성이 깃들어 있어요." 길을 걷다 차를 마시다 혹은 여행을 나서는 길에 문득 눈길을 끄는 마을의 풍경이 보이면 그곳이 곧 캔버스가 된다. 매일 걷는 골목, 하루 한 번은 들르는 카페의 커피, 아이와 함께 가는 미술관, 넉넉한 웃음으로 맞아주는 시장 상인…. 일상의 풍경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이들이 있다. 광주 곳곳을 스케치하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스케치로 담아 전시까지 진행하고 있는 어반스케쳐스 광주팀이 그 주인공이다.

어반스케쳐스 광주팀을 이끄는 서동환 대표를 포함한 20여 명의 팀원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직장인, 주부, 아마추어 작가 등 개인의 취향과 시선으로 즐겁게 만나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들이 광주를 그림으로 그려보겠다 결심하고 첫 번째로 광산구를 선택한 것은 작년 3월. 서 대표는 "기차든 비행기든 타지역에서 광주를 방문할 때 도착지는 광산구입니다. 광주의 시작, 관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광산구 곳곳을 스케치해서 200여 점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라고 전한다.

어반스케쳐스 광주팀

3월에 시작한 프로젝트는 10월 송정작은미술관 '광산을 그리다' 전시로 이어졌다. 월봉서원, 풍영정, 1913송정역시장과 같은 명소에서부터 골목, 현재는 폐업해 사라진 세탁소, 전파사 등 익숙한 장소까지. 광산구를 소재로 일상 속 보고 느끼는 공간과 사람들, 다양한 삶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한편, 어반스케쳐스 작품은 올해 3월 20일까지 광산구 별밤미술관 5개소에서 만나볼 수 있다. 매일 걷는 나의 도시를 조금 특별하게, 혹은 여행 온 듯 느끼고 싶다면 별밤미술관을 찾아보길 추천한다.

글 **김진희**·사진 **김진광**

'광산을 그리다' 프로젝트 참여작가 인터뷰

광산구를 그리며 애정이 더 깊어졌어요 조혜경(광산구 운남동)

아이 셋 엄마예요.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참여하게 됐어요. 저는 주로 사라질 건물을 그려요. 전에 이발소를 운영하던 분께 그림을 선물한 적이 있는데 감동 받는 모습에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올해도 광산구 곳곳의 노포를 그려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사계절 꽃 피는 광산을 기록하다 김경민(광산구 수완동)

수채화 그리는 일을 하다가 참여하게 됐어요. 꽃과 어우러진 풍경을 주로 그리며 광산구에 정감을 많이 느꼈죠. 광산구를 그린 작품을 보고 가족들도 즐거워하면서 물감이나 붓 등 필요한 도구도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번쯤, 작년 가장 즐거웠던 기억 서채은(남구 행암동)

남편과 모임을 가고 있었는데 목적지가 광산구였거든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멋져서 차를 세우고 "미안하지만 이곳을 그려야 하니 혼자 모임에 다녀오라"고 할 정도로 이 작업은 너무 즐거운 시간이에요. 1913송정역시장 상인의 친절한 표정, 웃음을 보고 그리면서 이 곳이 유명한 관광지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피구 통해 학교생활 재미 배웠어요”

공동체 정신으로 이뤄낸 피구대회 우승 이야기

한국,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필리핀…. 각국의 언어가 달라 말이 통하지 않지만 몸짓 만으로도 대화가 가능한 이들이 있다.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하남중앙초등학교의 피구동아리 학생들이 그 주인공. 이들은 국적도, 생김새도, 언어도 모두 다르지만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다.

하남중앙초 피구 동아리는 지난해 3월 김건우 선생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남자 20명, 여자 33명으로 이루어져 매일 학교 강당에서 피구 연습과 경기를 하고 있다. 김 선생님은 "언어가 달라 말이 통하지 않다 보니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학교에 오고 싶지 않아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았다"며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모두가 한데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다보니 피구를 떠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 선생님은 한국인 학생은 물론 고려인마을에 사는 이주민과 외국인 가정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같이 운동해보지 않을래?"라며 권유했다. 망설이는 학생들에게는 선물과 간식을 주며 마음을 끌어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 동아리라고 쉽게 보면 큰코 다친다. 하남중앙초 피구 동아리는 체계적인 강사진이 전문 기술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주말에도 나와 연습에 매진한다. 김 선생님은 "학생들의 부모님이 바쁘신 경우가 많아 대부분 주말에는 혼자 시간을 보낸다. 낯선 타국에서 언어장벽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도, 학원을 다니는 것도 어려운 학생들이다 보니 주말에도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화가 통하는 같은 나라 친구들끼리만 어울렸던 예전과 달리 동아리를 시작한 뒤로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어색한 한국어를 써가며 먼저 다가가기도 한다는 게 학생들의 말이다. 이 같은 협동심 덕분이었을까, 피구동아리는 지난해 광주광역시 교육감배 피구 스포츠클럽대회에서 우승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우승으로 출전 자격을 얻어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전에도 참가한 경험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피구동아리가 창단한 지난해 하남중앙초 내 학교폭력은 0건을 기록했다. 한 해 평균 5건이던 학교폭력 건수를 제로화한 것이다. 김 선생님은 "자라나는 학생들은 에너지를 해소할 곳이 필요하다. 해소할 곳이 없으면 학교생활을 힘들어한다"며 "쌓여있는 에너지를 피구를 통해 풀어주다 보니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 선생님의 목표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사회에 자연스레 녹아드는 것이다. 성취감을 한번 맛보게 되면 자신만의 세계를 확장해나갈 수 있다. 피구라는 스포츠로 성취를 맛보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살아갈 힘을 안겨주고 싶다는 것이다. 김 선생님은 "피구 동아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마중물'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성인이 돼서도 현재의 성취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래 기억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웃어보였다.

하남중앙초 피구동아리

새학기에는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얼마 전 전용 붓과 물감을 샀어요. 다가오는 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피구 연습은 하루 중 제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티마
(12살, 파키스탄 아빠·필리핀 엄마)

언어는 달라도 손과 몸짓으로 소통하는 우리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의사소통이 힘들었는데 친구들이 도와줘서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손과 몸짓으로 대화해요.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함께 피구를 하다 보면 꼭 눈빛만으로도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서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야스민(12살, 카자흐스탄 아빠·엄마)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아요!

피구공을 잡다가 손가락이 꺾이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재밌어서 하루라도 쉬면 몸이 근질근질해요. 처음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낯설었지만 통역을 해주면서 친해졌어요.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이해하면 언어가 달라 오해하는 일도 없어요. 피구 동아리 주장을 맡고 있어요. 우리 동아리가 협동심을 길러 전국 피구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최수아**(13살, 한국 아빠·엄마)

공존하며 나아가는 우리, 앞으로가 기대돼요

선생님 제안으로 피구를 시작하면서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해 주고 통역해 주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피구를 하며 협동심을 느꼈어요. 생김새도 언어가 달라도 친구들과 하나 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은솜(13살, 한국 아빠·필리핀 엄마)

한국에 쭉 살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한국에는 2021년 7월에 왔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언어가 달라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구 동아리에 들어와서 전보다 체력도 좋아지고 힘도 세져서 좋아요. 새로 알게 된 친구들도 많아져 학교생활이 더 즐거워졌고요. 커서 무용가가 되고 싶어요. 춤출 때 가장 행복해요. **올레시아**(11살, 카자흐스탄 아빠·엄마)

동아리 시작 후 더 재밌어진 학교생활

2018년 처음 한국에 와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먼저 말을 걸며 다가간 기억이 나요. 피구를 통해 말이 통하지 않는 어려움, 외국인의 고충 등을 친구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고요. 동아리 시작 후 학교생활도 더 재밌어졌어요.

김자넬(13살, 우즈베키스탄 아빠·카자흐스탄 엄마)

글 김다인·사진 오종찬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는다

이다지 저 | 서심독 | 2023년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 같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의지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정적 직장을 두 번이나 떠나 본 적이 있는 저자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부정적인 생각, 나를 갉아먹는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을 잘 알고 있다. 저자는 남들과 비교하며 초조해하지 않고 몸으로 부딪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새로운 꿈이나 아직 포기하지 못한 꿈이 있다면 이 책을 계기 삼아 의지의 꽃을 피워 당신의 찬란한 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선정한 추천도서 중 하나로, 사서의 추천 글 내용을 일부 발췌했습니다.

지난달 추천도서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감상평

성태환 | 광산구 소촌동

명상에 대한 조예가 깊은 것은 아니지만 명상은 어떻게 하며,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며 명상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가장 깊고 본질적인 내면에 존재하는 평온함과 행복에 도달하기 위함이라는 것,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하고 관찰하며 그 본질을 명료하게 봐야한다는 사실도 말이다. 이유 없는 감정은 없다. 책을 읽는 동안 내 자신에 집중하며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

추천도서 읽고 감상평 쓰고 도서상품권 받자!

광산구보가 추천하는 도서를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서 보내주세요. **추천도서 감상평을 300자 이상**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도서상품권을 드립니다.

- 성함, 연락처, 주소(읍·면·동까지만), 책 제목 기재 필수
- 감상평 보내실 곳 **매월 20일까지** / theann1@korea.kr

숨은그림찾기(2월호) 당첨자

김의용, 김희정, 박금정, 박종훈, 윤슬기, 유영용

“봄날같이 웃으며 달려들 그의 기차를 나는 기다리자”

송정리역 출발 직전 완행열차
(송병규 제공)

올해로 111년 째 운영…
유통과 금융의 중심지로 급속 성장한 광주송정역

1913년 10월 1일 광주송정역에 첫 기적소리가 울린 지 올해로 111년 째다. 요즘 광주송정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만2,000여 명, 유동인구는 그 두 배인 4만4,000여 명에 달한다. 연간으로 치면 이용객 800만 명, 유동인구 1천600만 명이 오가는 곳이다.

가히 호남선의 관문이자 광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광주송정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 (하)로 나눠 살펴본다. (상)편의 내용은 광산문화원이 2012년 발간한 ‘광주송정역 100년사’를 발췌해 정리한 것이다. 참고로 역 명칭은 원래 송정리역이었는데 2009년 4월 1일 광주송정역으로 개명되었다. 이 글에서는 ‘송정리역’과 ‘광주송정역’을 혼용하기로 한다.

광산지역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송정리역의 개설이었다. 송정리역은 호남선 구간 중 송정리-나주 간 구간이 1913년 10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면서 처음 개설되었다. 이후 송정리를 기점으로 여러 철도가 부설되었다. 1930년대 후반 경전선의 일부였던 송려선(송정리-여수), 광주선(광주-송정리) 등 사철의 국유화로 철도운행은 더욱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송정리역은 운수, 금융, 상업의 중심지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역 주변은 거대한 역세권이 형성되어 일본인과 한국인 자본가와 많은 노동자들이 몰려들었다. 이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였고 많은 상점과 회사와 공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역세권내 공장들은 양곡을 탈곡하는 도정공장과 주조장이 먼저 들어서고 차츰 철공장, 정미공장, 벽돌공장, 제사공장 등이 생겨났다. 그 중 도정공장이 가장 많았는데 한때 16개로 늘어나기도 했다. 도정공장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1927년에는 그 노동자수가 426명으로 최대였다. 따라서 일찍이 1920년에 '송정노동수양회'라는 노동단체가 결성되었다.

한국전쟁 후 송정리역은 인근 상무대에 군사전력학교가 창설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역 구내에는 보급부대기지창과 헌병부대, 수송관리부대, 보안사 등 군사시설이 포진하는가 하면, 송정리역은 군부대 전용열차인 '상무호'의 종착역이 되었다. 한편, 전라도에서 다량으로 생산된 쌀과 보리 등 미곡류 출하도 대부분 송정리역을 거쳐서 반출되었다. 또 무, 배추의 생산지로서 매년 서울에 김장 채소류를 수송하였다. 송정리역을 회상할 때 가장 향수어린 풍경은 통학열차이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광산 일대와 나주, 목포에 사는 중·고등학생들은 열차를 이용해서 광주로 통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학열차는 일반객실과 달리 화물칸

1970년대 송정리역(박성수 제공)

1 1986년 송정리역
2 1987년 송정리역 플랫폼
3 1987년 송정역 광장. 송정시 자율방역단 발대식
4 송정리역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驛史)

을 개조하여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열악했다. 열차 안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앉았다. 출발할 때나 정차과정에서 중심이 흔들리면 무더기로 넘어지는데, 이때 여학생들의 아우성이 괴성에 가까울 정도였다. 극락강역을 지나 광주역에 도착할 무렵 남학생들은 달리는 열차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내리기도 했다.

옛 송정리역의 명물 가운데 하나는 철로 위를 건너는 육교인 '딸각다리'이다. 나무로 지어진 이 구름다리는 승객들이 이동할 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딸각다리'라 부르게 되었다.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굉음소리에 가까울 정도로 시끄러워 옆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또한 높이가 3층 규모여서 주변 시가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으며, 어등산과 송정공원까지 시야에 들어왔다. 1950년대 송정리역 구내에는 기관차에 주입하는 물탱크가 있었는데, 주변에는 기관차에서 타고 남은 석탄 부스러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매일같이 아낙네들이 아직 덜 탄 석탄 부스러기를 골라내 가정집 연료로 재활용하였다.

송정리역 광장은 유동인구가 많아 집회장소로 으뜸이었다. 해방 이후 반공(反共)을 국시로 삼았던 시절에는 매년 3·1절을 비롯하여 8.15 광복절에 반공궐기대회가 열렸다. 그래서 송정리역 광장은 광산구민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다녀간 곳이기도 했다. 송정리역 앞 '신신다방'은 만남의 장소로 유명세를 탔다. 신신다방은 송정리역 대합실을 벗어나 광장으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물이었다. 일본인이 지어놓은 이 건물은 해방이 되자 한국인이 인수하여 성업을 구가하였다. 목조로 된 3층 건물은 1층에 빙과류를 취급한 제과점이 있었으며, 2층은 신신다방, 3층은 당구장이었다. 열차 이용승객과 더불어 청춘남녀가 데이트를 하거나 사업상 드나드는 고객들로 연중 북적거렸다. 이처럼 송정리역과 역세권은 근·현대 광주의 발전 축으로서 한 시대를 견인해온 대단한 잠재력을 발휘해왔다. 아울러 현재도 지역경제의 선구자적 역할과 광주.전남의 관문으로서 핵심적인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시문학파를 이끈 용아 박용철 시인(1904~1938)의 생가가 광주송정역과 가까운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다. 그의 시에서 송정리역 기적소리와 함께 봄의 희망을 느낄 수 있다.

글 박준수·사진제공 광산문화원 홈페이지, 광산구DB

1964년 신신다방 앞 거리 퍼레이드(김석열 제공)

360여 년간 운남지역을 지켜온 보호수 갈참나무

수령이 오래된 나무로 보호하고 증식할 가치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노거수를 보호수라고 말한다. 반면에 천연기념물(식물)은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어 관리주체가 다르다.

2024 운남동 당산제 행사

오랫동안 주민들과 함께 해오면서 마을의 액운을 막아주고 안녕을 빌도록 해주는 신목 또는 당산목, 명목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 음력 정월대보름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소원을 비는 각종 행사가 펼쳐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주민들과 모진 풍파를 함께 헤쳐온 광산구 운남동 보호수 갈참나무. 1982년 12월 3일 보호수로 지정됐다. 당시 수령(나이)이 320년이다. 그로부터 40년이 흘렀으니 이제 360살이 됐다. 택지 개발 등으로 높은 옹벽이 설치되는 등 생육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목은 아주 잘 자라고 있다. 이 갈참나무가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이나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속되고 주민들의 액운을 막아주길 바라는 당산제가 지난달 23일 많은 운남동 지역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사실 참나무류가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는 흔치 않다. 그만큼 생존력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갈참나무는 더더욱 그렇다. 참나무는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등 종류가 다양하다. 흔히 참나무 6형제라고 불린다. 잎 크기로 보면 갈참나무는 막내에서 두 번째 정도 된다.

이들 참나무 6형제를 구분하는 데는 도토리의 모양과 크기, 도토리를 싸고 있는 모자의

털 유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잎의 모양과 크기다. 도토리가 자라는 씨방 껍질에 털이 없고 밋밋한 종류는 신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이다. 신갈은 도토리가 크고 둥근형이지만 갈참과 졸참은 작고 길쭉한 형태를 띠고 있다. 잎의 모양도 다르다. 이들을 민모자 삼 형제라 한다. 참나무 6형제 중 털모자를 쓰고 있는 도토리도 있다.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다. 상수리와 굴참나무는 도토리가 매우 크고 둥글다. 떡갈나무는 좀 작고 길쭉한 편이다. 잎 모양은 상수리와 굴참나무는 비슷하지만 뒷면의 색깔이 다르고 떡갈나무 잎이 제일 크다. 떡을 싸서 보관했다고 해서 떡갈나무라 했다는 소리도 있다. 짚신 밑에 깔고 다녔다 해서 신갈나무라 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36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민과 함께 해온 운남동 갈참나무의 경우 모진 풍파에 일부 고사가지가 있긴 하지만 잘려나간 가지 끝 상처가 잘 아물어져 유합조직이 활성화되는 등 대체로 건강한 모습이다. 수고가 13m, 가슴높이(흉고) 나무둘레 2.7m, 수관직경 20m다. 한 여름이면 풍성한 수관 밑에 정자가 있어 주위 동네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는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위에 느티나무와 화백, 동백나무 피라칸타 등이 어우러져 있다.

2월 말, 무성한 잎을 잉태한 눈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몽실몽실 뭉쳐 있다. 앞으로 세 달 후쯤이면 더위에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고 삶의 정서에 도움을 줄 것이다. 더울 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정자의 그늘막이 되어주고 마을의 액운을 막아주는 운남동 갈참나무를 보호하는 것은 너와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몫이다.

광산구 운남동 392-1 / 1982. 12. 3. 지정

글 **김중태**<광주나무병원 나무의사>·**사진제공 한진수**

의회소식

따뜻한 지역사회 실현… ‘설맞이 온정 나눔’

광산구의회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문활동에 나섰다. 시설 10곳을 선정·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이용자들에게 따뜻한 명절 인사를 건넸다. 또한 시설별 종사자들을 만나 나눔 복지 실천에 앞장서 온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 발표

광산구의회가 2월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치를 가능토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 위헌 판단에 상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PC·모바일로 보는 ‘광산구의회 소식’

광산구의회 누리집(홈페이지)과 유튜브 · SNS 공식 채널을 통해 ‘의정소식’을 전합니다.
QR코드를 찍고 광산구의회 의정활동을 확인하세요.

제286회 임시회 생중계 일정

3. 18.(월) 10:00	제1차 본회의
3. 26.(화) 10:00	제2차 본회의

※생중계 일정은 의회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누리집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시민에게 지혜를 얻고 소통하며 조례를 만들어 갑니다

광산구의회가 주최하는 토론회·간담회에 구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법 및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 의견이 있는 분들은 광산구의회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관련 토론회
(박현석의원 주재)

시민안전위원회

▲ 하천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한윤희의원 주재)

경제복지위원회

▲ 1913송정역시장 야시장 개최 방안 모색 간담회
(공병철의원 주재)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간담회
(윤혜영의원 주재)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 의견수렴 간담회
(박미옥의원 주재)

▲ 슬로푸드 음식문화 활성화 간담회
(양만주의원 주재)

“베푼다는 것만큼 즐거운 게 또 있을까요”

황솔촌 부녀에게 배우는 나눔 ‘참여와 지속성’

“2대가 이어오는 건 갈비뿐만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습니다.” 돼지갈비 전문식당 황솔촌 대표 황의남 씨는 이날도 장애인들을 식당으로 불러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며 이같이 말했다.

소외계층인 아동이나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외식 지원 봉사를 꾸준히 펼쳐오던 그는 “인생에서 세 차례 죽을뻔한 위기를 겪우 넘겼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 덤으로 산다고 느끼며 더불어 살 수 있음에 감사함을 깨닫고 봉사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맛있는 한 끼 식사를 지원하는 것이 내 재능이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2011년부터 봉사활동을 펼쳐왔지만 그 이전에는 소소하게 독거 어르신들의 반찬을 지원하는 등 광주 이곳저곳에서 많은 이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오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며 봉사를 펼쳐오다 보니 몇 억 가까이 매출이 누락되자 세무서에서도 조사를 받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그는 “당시에는 몰랐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정리해놓지 않아서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 당당히 조사에 임했고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웃들에게 그만큼 많이

베풀었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뿌듯했다"고 이야기했다.

10년이 넘도록 이어온 봉사활동에 나름 노하우가 생겨 기부의 원칙을 만들기도 했다. 황솔촌의 5대 기부, 후원원칙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대상일 것,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주관·진행하는 후원일 것, 셋째로 맛있는 음식으로 후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계획을 세워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국세청에 식자재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필요한 곳에 후원하고 지원한 것들이 제대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지속가능한 기부와 후원을 위해 이러한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란 황나은 씨 또한 황솔촌 수완점을 운영하면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모로부터 떨어져 사는 공동생활가정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와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직접 마련해 배달까지 하는 등 봉사활동 현장에서 아이들의 희망이 되어주며 황 씨 가문 2대가 이어가는 봉사활동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황나은 씨의 꿈이다.

그녀는 "어른들의 시선에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진짜 아이들이 갖고 싶은 선물을 준비해 전달하면 그 의미가 클 것 같다고 아이디어를 냈다"며 "장난감이나 인형을 많이 생각하지만 여자 아이들은 대부분 화장품, 남자 아이들은 신발을 많이 선호한다. 어떤 친구는 아이돌 앨범을 갖고 싶다 해서 지난 크리스마스에 전달했다. 그 친구가 받자마자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차고 행복했다"고 생생한 후기를 전했다.

현재까지 누적된 지원금액만 17억이지만 앞으로 두 부녀는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가며 후원금액 100억을 목표로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황나은 씨는 "맛있는 갈비를 많이 팔아서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다. 아버지처럼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망설임 없이 손길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1 황솔촌 '함께 나누는 행복한 밥상' 2 황나은, 황의남 부녀

글 **김혜인**·사진 **황금동**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나눔 이야기

"누군지 묻지 마세요" 설 앞두고 등장한 얼굴 없는 천사들

❶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익명의 기부가 이어지며 온기를 더했다. **신창동 익명기부자**는 후원금 210만원을 전달한데 이어 **우산동의 익명기부자**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50만원을 **주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기부금 350만원과 후원물품 752개를 전달했다. 한편, **첨단2동 익명기부자**는 3년간 월 5만원씩 총 180만원의 청소년 장학금 기탁을 약속했으며, ❶**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하남동 익명의 독지가**는 25번째 기부로 배 28상자와 천혜향 22상자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놓고 사라졌다.

미처 다 담지 못한 이야기

국민연금관리공단 광주지역본부 50만원 상당 한과세트, **광산로타리클럽** 백미 10kg 10포, **광산로상가번영회** 참치세트 10개, **광산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 후원금 250만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백미 10kg 45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제사용품 70박스, **김가네 하남2지구점** 백미 20kg 36포, **도산동·동곡동·송정1동·송정2동·우산동·수완동·신창동·어룡동·임곡동·첨단1동 지사협** 명절 음식 나눔행사, **도산동 지사협 정장규 씨** 100만원 상당 후원물품·겨울이불 20채, **동곡동 지사협 김선희 씨** 백미 2kg 30포,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100만원 상당 명절선물세트 및 식재료, **메가커피 광주평동점** 라면 35박스, **비아동 청장년회** 대학진학 장학금 100만원, **비아신협** 백미 20kg 30포·장학금 350만원, **사단법인 꿈나무** 떡갈비 30세트, **㈜동그라미솔빛** 떡대 20kg, **산들요양병원** 참치세트 5개, **소촌농공단지협의회** 20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송정1동 지사협** 후원금 200만원, **송정로타리클럽** 백미 10kg 15포·라면 10박스·화장지 10개, **송정2동 라인입주자대표회의** 라면 10박스, **송정2동 지사협** 50만원 상당 취학아동 책가방·학용품세트, **송정2동 꿈사모봉사단** 비타민·홍삼캔디 50세트, **송정2동 적십자봉사회**는 떡국떡 60kg, **송정2동 한마음송년행사추진위원회** 식용유세트 33개, **송정제일교회** 라면 50박스, **수완동 지사협 꿈나무** 장학금 300만원, **신흥동 지사협** 월례회의 참석수당·아나바다 수익금 80만원, **어룡동 지사협** 정월대보름 찰밥 나눔 50세대, **어룡동 사랑과사랑교회** 후원금 100만원, **어룡신협** 식용유세트 30개, **어룡동 하나님의교회** 명절선물세트 25박스, **우산동 더나은복지센터** 후원금 100만원, **우산동 대덕치과** 후원금 100만 원, **우산동 하나님의교회** 130만원 상당 생필품세트, **월곡중 학생회** 성금 113만원, **전국노래자랑 최우수상 박으뜸씨** 상금 100만원, **㈜화인데코** 후원금 500만원, **지오구조안전진단㈜** 백미 10kg 30포, **차수학 선암점** 라면 50박스, **참사랑한방병원** 천옥고 200개, **첨단2동 이레식자재마트** 백미 10kg 50포, **첨단2동 통장단 이영미씨** 42인치 TV 1대,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100만원 상당 사과·배, **한국우리밀농협** 라면 100박스, **한국환경관리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50만원 상당 한과·4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85만원 상당 지역특산물과 명절선물세트, **화정떡갈비** 백미 10kg 20포

INFORMATION

공지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 안내

감면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
교통비	만 65세 이상 노인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단, 성수기, 일부 노선은 제외)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 국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문화활동비	만 65세 이상 노인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 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그밖에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입장 시 신분증 제시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건강 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며, - 재산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 재산 9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 경감 -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1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
각종 공공 요금	노인복지시설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복지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 상수도 요금 감면, 하수도 사용료 감면	환경부 1577-8866

노인복지 사업(기초연금) 운영

대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내용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213만원), 부부가구(340.8만원)
지급액 : 노인단독(최대 334,810원), 노인부부(최대 535,680원 / 부부감액 20% 적용)

문의 고령사회정책과 062)960-4153

전국 폐지수집노인 전수조사 실시

기간 2월 ~ 3월

대상 지역 내 고물상 및 폐지수집 노인

내용 지역 내 고물상을 이용하는 폐지수집 어르신 현황 파악(전수), 개별 상담을 통한 노인 일자리·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문의 고령사회정책과 062)960-4155

INFORMATION

다회용기 지원센터 운영

대상 행사·축제 주관 기관·단체·개인 등

내용 다회용 식기 무상대여 서비스

방법 사용일 3일 전까지 다회용기 대여 수량과 이용 장소 등 신청 및 접수

장소 광산구 다회용기 지원센터(광산구 소촌로 97)

문의 광산구 다회용기 지원센터 062)572-3980

영조물배상 책임 보험 이용 방법 안내

기간 사고 발생일 기준 3년 이내

내용 광산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도로·공원·주차장 등 광산구 소유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음

*광산구 영조물로 피해 입은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방법 ① 사고발생 알림(→광산구)

② 사고접수(→공제회)

③사고조사 요청(→보험사)

④ 보험금 지급(→피해자)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문의 회계과 062)960-3964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

기간 2월 ~ 12월 *예산(300백만원) 소진 시 사업 자동 종료

대상 광산구 소재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내용 ①시설개선자금(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HACCP 적용업소 등)

②육성자금(모범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시책 참여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선)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서식은 광산구 홈페이지 '공고' 참조

문의 식품위생과 062)960-8706

건축·부동산 '안전도시' 종합상담실 운영

기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5시(연중)

대상 광산구민 누구나

장소 광산구청 1층 민원실(부동산지적과 앞)

내용 안심전문가(건축사 15명, 공인중개사 23명)와 함께하는 부동산거래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및 부동산거래 분쟁 상담, 건축인허가·건축분쟁상담 등 관계법령 및 전문지식 제공

방법 전화예약 062)960-6400 후 상담 진행

문의 부동산지적과 062)960-8242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안내

기간 연중

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9 1. 1. ~ '15. 12. 31. 출생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내용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포인트 지급(월 13,000원)

방법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홈페이지 http://bokjiro.go.kr/복지로앱) 신청

문의 교육도서관과 062)960-3843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기간 3. 19. ~ 4. 8.

대상 광산구 내 개별 토지

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 (방문)구청 부동산지적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 (인터넷)구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방법 (제출내용)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처)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 동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의견서 서식은 광산구 홈페이지, 구청 부동산지적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INFORMATION

*의견제출 결과는 재조사, 감정평가서 검증 후 신청인에 우편으로 개별 통지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 30. 결정공시
문의 부동산지적과 062)960-8241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기간 (개별주택)3. 19. ~ 4. 8. / (공동주택)3. 15. ~ 4. 3.
대상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열람 (개별주택)구청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방법 의견제출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및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절차 후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
문의 (개별주택)세무1과 062)960-8141, 8142 / (공동주택)한국부동산원 콜센터 1644-2828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① 선정기준 변경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32% / 주거급여 47% → 48% 기준 상향
②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다인(6인), 다자녀(3인) 가구의 승용차 1대 일반재산 환산 기준 상향(2,500cc 미만·차량 10년 이상,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생업용 2,000cc미만 재산산정 제외 *그 외 차량 기준 현행 유지
③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월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지원 대상 제외)
④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30세 미만 청년까지 연령 확대 *40만원 + 30% 공제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 60만원 + 30% 공제
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 상향 조정 23년 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11% 인상 *교육활동 지원비 '카드바우처'로 지원
문의 복지지원과 062)960-3956, 8347

모집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기간 3. 18. ~ 3. 21. 오전 10시~11시 30분, 오후 1시 30분 ~ 4시
대상 광산구 거주 임산부 및 영유아(2019. 1. 1. 이후 출생자) 중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영양위험요인 1개 이상 등
내용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
장소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다목적교육실
방법 산모수첩(임산부) 구비 후 방문 *방문 전 전화문의 필수
문의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062)960-8753, 8754

건강

지역주민 불소용액양치 사업

기간 연중 *공휴일 및 평일 12시~13시 제외
대상 광산구 관내 주민
내용 불소양치용액* 배부(300ml)
*충치예방 및 시린이 완화 효과 / 주 1회(10cc) 사용
방법 전화 문의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내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행
장소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1층 구강보건실
문의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062)960-3814~5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한부모, 3자녀, 장애아동 중 아토피피부염(L20) 진단받은 12세 이하(2012. 1. 1. 이후 출생자)
내용 보습제 3개월 1개 지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개월)
방법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진단명, 질병코드, 진료날짜 필수기재) 기타 증명서류(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본 등) 지참 후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신청(신청서 작성)
문의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062)960-8813, 8827

맛있는 추억이 담긴 행복한 순간

할머니가 사골 밭에서 직접 키운 콩, 그리고 밤맛간에서 빻아 온 콩가루로 만든 콩물국수입니다. 아들과 손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웃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명달아 모두가 행복해진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경미(광산구 수완동)

바쁜 와중에 초카네 가족을 위한 고모의 보양식, 직접 채취한 능이버섯으로 끓여주신 백숙이에요. 국물도 진하고 진짜 최고였습니다. 고모 사랑해요♡
김명희(광산구 운남동)

귀염둥이 딸 민이가 sns에서 보고 꼭 만들어 보고 싶다던 문어빵이에요. 마침 집에 재료들이 다 있어서 도전해 봤어요. 정성이 듬뿍 들어간 맛에 생각보다 모양이 예쁘게 나와서 기분이 엄청 좋았답니다.
김혜경(광산구 소촌동)

딸이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엄마 생일. 딸과 사위가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가족사진 남겨봤습니다. 아들이 하나 더 생겨 무척 행복한 요즘입니다~~
정떨굴(광산구 첨단2동)

매일 어떤 색다른 요리를 할까 고민해요.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정보를 얻어 아이들과 함께 요리도 하며 겨울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 먹어보는 빨간 어묵탕! 매워도 계속 꼬치 어묵을 먹는 아이들을 보며 오늘도 웃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천국(광산구 신창동)

아이와 놀오리 집게로 만든 오리 주먹밥. 밥을 꾹꾹 넣어서 만드니 맛있게 먹어라고요. 밥에 소금, 설탕, 깨 솔솔 참기름 쓱~ 아이랑 요리하기 어렵지 않아요!
김보경(광산구 신창동)

맛있는 추억
사진공모전

여러분의 '맛있는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요리했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순간, 아이가 만들어 준 음식을 먹었던 순간,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 등 맛있는 추억이 담긴 행복한 순간이면 무엇이든 좋아요. 선정된 분께는 **치킨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성함, 연락처, 주소**(읍·면·동까지만), **사진 소개글**(100자 이상) 필수
- 글, 사진 보내실 곳 **매월 20일까지** / theaan1@korea.kr 접수

*고화질로 촬영 후 이미지를 '원본' 파일로 보내주세요.
*광산구 지역에서 촬영한 사진을 우선 선정합니다.

지속가능 광산

2024 광산 공유아이디어 경진대회

| 기간 | 2024
2. 20. |화| ~
3. 15. |금| 18:00 도착분

| 주제 |

힘이 되는 공유
삶 속에서 실현되는 공유아이디어

- 자원을 아끼고 비용을 줄이는 **공유**
- 지구를 지키고 환경에 이로운 **공유**
- 이웃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는 **공유**

| 자격 |

공유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팀(3인 이내)

| 절차 |

공모신청·접수	1차 서류심사	1차 결과발표	2차 온라인투표	2차 결과발표	3차 PT심사 및 시상식
2.20.(화) ~ 3.15.(금) 18:00	3. 18.(월)	3. 19.(화) ~ 3.28.(목)	4.1.(월) ~ 4.11.(목)	4. 12.(금)	4. 19.(금)

| 시상 |

구분	규모	상금
대상	1명/팀	1,000,000원
최우수상	1명/팀	500,000원
우수상	3명/팀	250,000원
특별상	7명/팀	100,000원
굿 아이디어상	12명/팀	모바일 상품권 (1만원 상당)

* 대상, 최우수상 : 광산구청장상
* 우수상, 특별상 : 광산공유센터장상

| 접수 |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http://blog.naver.com/sharegs
이메일 접수 : sharegs88@naver.com

| 문의 |

광산공유센터 사무국
062.954.6222

광산공유센터

지면을 드립니다

동아리 활동, 알찬 행사 등 주민들과 널리 공유하고 싶은 정보를 광산구보 뒤표지에 무료로 실어드립니다. **게재 문의** 홍보지원팀 062)960-8047
* 상업목적의 광고 게재 여부는 별도 협의(유료) 후 결정됩니다.

광산구보

VOL. 356

기획특집

광주에서 가장 먼저 봄이 오는 농업기술센터
봄의 싱그러움을 담은 동곡동 딸기 스마트팜
삶의 이야기를 그리는 어반스케쳐스
피구로 공존의 의미 배우는 하남중앙초 학생들

2024 3